



최종보고서 End and Continue

변동익 | 서현식 | 조유림 | 박연수 | 이다운

Contents

01

우리의
활동

- Dumpsite
- Pugaro
- Homestay

02

기타 활동

- Bangusine
- Singapore Camp
- 350PPM
- Y친구들과의 관계

03

개인소감



01

<우리들의 활동> **Dumpsite**

“아띠들의 배움터, 에너지원”

덤프싸이트란?

우리가 사는 다구판 시티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매립장, 덤프사이트.
그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띠들의 주 활동



아띠클라쎄

아띠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시간



상처치료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상처치료를 해주는 시간



피딩 프로그램

한달에 한번 주민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

아띠클라쎌

3,4,5월

관계맺기, 알파벳, 컬러링



아띠클라쎄

6월 다양한 세상 보여주기



느낀점



변동익(Cardo)

우리의 주 활동지였던 곳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처음 3월 그랬듯이 처음에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곳이었다.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빠른 적응기간을 거쳐 그냥 아는 동생들 만나러 조빫 놀아주러 주민들 만나러 가는 게 되었다.
덤프사이트는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푸가로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면 덤프사이트는 그저 아이들 주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에게만 집중이 되었던 것도 있었고, 그들의 입장, 생각을 조금 못했던것도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자' 라는 의도로 지구교육을 실시 했었다. 다 지나고 나서 현식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보고 너희는 12년 동안 수능만 보고 그리고 대학가서 취업만 본다. " 이말을 들었을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다.
이런점에서 조금 깊은 생각을 못했던것이 아쉬웠지만 그외는 좋은 경험들이 될것같은 느낌이 든다 ㅋㅋㅋ

느낀점



서현식(Atong)

우리의 가장 큰 활동 사이트이자 가장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본 사이트이다. 처음 관계형성을 시작한 순간부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지 않고 항상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나의 삶과 정반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로 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배웠다.

우선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느꼈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가 쓰는 물, 전기 등 모든 생활 면에서 낭비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느꼈다.

아이들의 상처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지저분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주민들은 항상 웃고, 그런 소소한 것들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삶' 그 자체였다. 지저분함-깨끗함, 불편함-편안함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나름대로의 생활 노하우를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다.

느낀점



조유림(Lagring)

덤프사이트를 처음접했을때 환경에 적응을 하지못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힘들었던적이있었다 점차 자주 가니 익숙해진 덤프사이트. 갈때마다 정겹게 맞아주는 덤프사이트 주민들이 좋았다. 아띠클라세 수업이 주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어른들에게 신경을 못쓴거 같아서 아쉽다. 우리가 있는 기간에 덤프사이트에서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들 대상으로 모빌 만드는수업이 좋았던거 같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의 수업을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느낀점



박연수(Narda)

처음에 덤프싸이트를 갈 때에 거부감이 없었다.
더럽고 열악한 환경은 분명하였지만, 환경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었기때문인 것 같다.

처음부터 내가 환경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을 살펴보려 해도 우리를 정신없게 반겨주는 아이들의 소리와 손때문이였달까?

그런 이유때문에서인지 사람을 보게되었고 그들의 웃음뽀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랬기에 밝은 사람들을 보았기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덤프싸이트는 갈때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곳 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나도 따가운 땀별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항상 좋기만은 하진 않았다.

때론 지칠때도 있었고, 피를 부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떤상태이던지 아이들은 항상 날 반겨주었고, 손잡아 주었었다.

그럴때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고, 지친 나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었던 싸이트이다.

4개월간의 활동을 살펴보자면 덤프싸이트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하는 싸이트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시 돌이켜서 보면 그 때 한번만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았다면 아이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싸이트에서 누구든 처음은 서투른 법이고 우리는 점점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만의 목적이 생긴 후로부터는 점차 활동준비를 해가는 우리의 팀원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었던 싸이트이다.

언젠가 다시 필리핀에 가게된다면 다시 활동지에 가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다.

느낀점



이다운(Kikay)

활동하는 4개월 동안, 덤프사이트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집이 새로 생기는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런 소소한 변화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물론 아띠클라쎄와 상처치료를 하며 아이들이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보는것도 즐거웠고!

솔직히 말해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라온아띠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가 되더라도 다시 찾았을 때, 그 문제가 좀 더 호전이 되어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01

<우리들의 활동> **Pugaro**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푸가로란?

다구판에서 15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섬마을**로,
Pugaro Integrated School이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띠들의 주 활동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를 통하여
아띠들과 함께
작물을 길러보는 시간



아띠 클라쎄

아띠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시간



상처치료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상처치료를 해주는 시간



활동에 대해서...

3,4월 Only 그린하우스!

중간평가

5,6월 그린하우스를 통해 주민만나기

활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인사!



350PPM



마을 쓰레기 줍기

함께 활동한 친구들과 350PPM에 대해 설명한 후,
마을 쓰레기 줍기



350PPM 연극

*Day care : 필리핀의 유치원, YMCA 아기스포츠단 같은 곳
데이케어센터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는 연극으로 꾸며 350PPM 알리기

마을 쓰레기 줍기

1. 분리수거 교육
2. 마을 돌며 쓰레기 줍기
3. 쉬는 시간 및 간식



데이케어 연극

*Day care : 필리핀의 유치원, YMCA 아기사포츠단 같은 곳

**개학을 맞아 데이케어센터를 방문.
총 3번의 방문 중, 하루를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연극 내용

필리핀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의 비닐봉투사용이 많은데,
이것을 환경문제로 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극으로 만들어보았다.
비닐맨(동익) VS 장바구니걸(연수) 이야기를 구성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닐은 지구에게 좋지 않으니
비닐봉투를 대신해 장바구니를 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데이케어 연극

*Day care : 필리핀의 유치원. YMCA 아기스포츠단 같은 곳



아쉬운점

1. 그린하우스 관리를 완벽하게 못했다.
2. 아이들과의 관계를 너무 늦게 맺기 시작했다.
3. 푸가로의 정수 시설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대보지 못하였다.
4. 350PPM을 계획할 때 개학을 생각하지 못해 일정을 급하게 바꾸었다.

느낀점



변동익(Cardo)

푸가로는 매번말했던것이지만 취지와 목표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저 발농사를 하는 활동이 었지만, 중간평가이후 목적에서 수단으로 바뀌면서 모든것이 해결이 되었고 인사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수 있었던 활동지였다.

덤프사이트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곳이다.

느낀점



서현식(Atong)

너무 어렵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든 사이트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정말 크고 오히려 조금만 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푸가로를 선택할 것 같다.
 사실 처음에는 ‘그린하우스’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해가 안됐다.
 그저 작물 가꾸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통해 소통을
 하라는건지 도무지 몰랐다.
 내가 어리석었다.
 ‘작물 가꾸기’에만 초점을 뒀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완전히 뒤바꾼건 놀랍게도 ‘인사’였다.
 오로라 선생님의 제안으로 ‘인사’를 한 번 했을 뿐인데 많은 아이들이 몰려
 들었고 푸가로 주민들 또한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었다.
 그걸 통해 다시 한 번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소통’의 시작은 인사부터 라는것.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선 생각
 이 나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기’에 대해 많은 걸 배운 사이트 같다.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는 절대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아닌데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졌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느낀점



조유림(Lagring)

3~4월에는 그린하우스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주민들과의 관계를 늦게 형성된거에 대해 아쉬움이 너무 크다.

중간평가 이후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되어 푸가로 아이들 주민들과 관계를 쌓을 수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그린하우스에 대해 관심을 갖는모습과 우리와 함께 수업을 자연스레 참여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가 없는 기간에 그린하우스 관리에 대해 좀 걱정이든다. 또한 데이케어센터가 방학기간이 겹쳐서 몇 번의 수업밖에 할 수 없었던점.

푸가로는 아쉬움이 많은 활동지라 본다.

느낀점



박연수(Narda)

푸가로는 우리 팀원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해준 사이트이면서 초점의 중요성 역시 알려주었던 곳.
그린하우스를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써 초점을 두니 시야가 넓어졌던 곳 이다.

나중에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한 후 부터 오히려 덤프사이트보다 푸가로에 치중했었던 것은 사실이
다.
그렇기에 팀원들 모두 더욱더 애착이 될만한 곳 이기도 하다.

나의 걱정으로는 우리는 '방학'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16기 단원 분들은 그것이 힘들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처 하지못한 아이들 뿐만이 아닌 '주민 ' 과의 소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필리핀으로 출국 전 부터 푸가로는 '위험한 곳 ' 이라는 선입견이 나에게 있었기에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 도 있다.
왜냐하면 푸가로 에는 도박과 음주를 즐기는 청년들이 많아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때
문이다.
하지만 내가 간간히 만났던 청년과 성인분 들은 그러지 않았다.
선입견의 무서움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을 통해 청년과 성인분 들을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나에게 선입견이 없었다면
서스럼 없이 정말 '주민 ' 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 도 있다 하하)

아무튼! 활동 막판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준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활동을 즐겁게 준비했던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

느낀점



이다운(Kikay)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활동은 그저 수박 겉 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필리핀에서나, 한국에서나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그린하우스도 빛을 발했고, 우리 안에서의 푸가로 활동 의미도 더 흥미롭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람!! 사람 없이는 활동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01

<우리들의 활동> **Homestay**

“마음으로 연결된 또 다른 가족”

아띠들의 활동

다구판과 한 시간정도 떨어진 “산타크루즈”라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각각 한 집에 한 명씩 7월3일부터 7월27일간 홈스테이를 했다.



아띠클라쎄

아띠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시간



페인트칠하기

초등학교 정문 페인트칠하기



피딩 프로그램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피딩프로그램

그 외에도 우리는 산타크루즈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 맺기와 그 곳에서의 필리핀 문화를 경험하였다.

느낀점



홈스테이의 삶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이었다.
솔직하게 나는 롤리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냥 쉬러들어가는것으로 알아서
일주일 반동안을 현지인처럼 놀고 먹으면서 지냈었다.
중간에 취지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과 만나면서 필리핀을 조금더 알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것 같다.

느낀점



느낀점

약 3주간의 홈스테이는 너무 환상적이었다.

나나이 딜링, 파파이 씨자르, CJ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나를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고, 덕분에 편안한 홈스테이 생활을 한 것 같다.(thanks to them for make me comfortable)

홈스테이는 필리핀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물론 완전히 다 배웠다고는 못해도 경험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의 시골(country side)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식단, 생활 패턴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나의 변화를 느꼈다.

전기가 안 나오고, 물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오잉? 전기가 없네? 물이 없네?

신기했다.

하루는 한국에서 지내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었다. 공사(construction)로 인해 약 2시간 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었다. 심지어 그에 대한 안내 공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가 났었다.

어리석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물을 받아 쓰고 전기가 없으면 그냥 촛불(촛불)을 키는 그런 상황들에 아무렇지도 않고 즐거웠다 오히려(instead).

한국은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명하게 앉아 하늘을 보는 것, 처음 보는 주민들이지만 늘 보던 사람 처럼 익숙해 하는 것, 모든 게 좋았다.

밥 먹는 것부터, 마냥 누워서 잠을 자는 거, 어린아이 처럼 자전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닌 거,

강아지들 어루만져 주는거, 밖에서 샤워하고 비 실컷 맞은 것,

다리에 물집 잡혀서 일주일 간 죽쓰던 거랑 파파이께서 치료해주신 것들 또한.. 모든게 그저 좋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

말 주변이 없어서 파파이, 나나이와 말을 많이 못했던 게 가장 아쉽다.

내가 조금 더 솔직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밝아져야 한다는 걸 느낀 홈스테이였다.

느낀점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한적한 시골마을 내가 홈스테이 할 수있었던건 정말 행운이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주민들과 가족이되었다
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게 일상인 산타크루즈 난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난 나나이리빙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지만 할머니께서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행복했고 감사했다.

느낀점



느낀점을 쓰자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싶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들을 통해 나는 새로운 이름인 Narda Ymana 가 생기었고,
사근사근하지 못했던 딸인 나에게 항상 공주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생겼다.

처음으로 농사가 이렇게 힘든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위대함 또한 알게 되었다.
따갈로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주도학습을 하던 날 보며 신기함을 느꼈었다.하하

그냥 홈스테이는 다 신기했다.
새로운 가족이 생김으로써 나에게도 새로운 위치가 생겼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었다.
그리고 나 역시 환경과 위치가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없이 퍼주는 사랑을 받는것도 신기했다.
나도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가족처럼 받았던 사랑만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그냥 다 신기하고 느꼈고 좋았다.
한없이 좋았던 홈스테이다.

느낀점



부족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덕분에 나는 더 여유로워 질 수
있었다.

그런 여유로움은 나에게 필요했
던 휴식같은 깨달음이랄까.. 또,
나를 정말정말 사랑해주시는 필
리핀 엄마아빠, 언니, 그리고 막
내와 3주를 함께 하며 가족의
소중함도 많이 느꼈다.



02 기타활동

- Bangusine
- Singapore Camp
- 350PPM
- Y친구들과의 관계

“아띠들의 크고 작은 소중한 추억들”

Bangus Festival

Bangus Festival 이란?

2002년부터 시작된 Dagupan의 가장 큰 축제으로써, Dagupan의 특산물인 'Bangus' 라는 (영어로는 milk fish라고 한다) 생선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이다. 이 축제는 보통 한 달간 진행이 되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길거리에 서 맛 볼 수 있다.



Bangus Festival

Bangusine 이란?

- 여러나라에서 참가.
- Bangus를 가지고 음식을 만듦.
- 우수한 팀을 뽑아 시상을 함.





BANGUSINE FESTIVAL



Singapore Work Camp

우리는 5일간 싱가포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캠프에 참여했다. 첫날은 우리의 활동지인 덤프사이트에서 그들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것을 도왔고, 나머지 4일 동안은 Antipangol Elementary School에 도서관을 지어주는 워크캠프를 함께했다.

그 후 마지막 날, 우리는 Mapita라고 하는 산 속의 학교에 가서 나무도 심고, 피딩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5일이 끝난 후, 또 우연한 기회로 그들과 함께 Hundred Island라는 곳을 가기도 했다.

이 캠프를 통해 우리는 많은 싱가포르 친구를 만들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중간평가

우리의 활동 중간 시점에서 한국에서 오신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되었던 중간평가. (16.05.18~23)

이 기간은 제 작년 돌아가신 故문홍빈 총장님의 기일과도 비슷했고, 그래서 우리는 문총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Y친구들과의 관계

현지 활동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Y친구들을 소개합니다!





03

개인 에세이

“아띠들의 5개월간의 소감”

변동의 (Cardo)

라온아띠를 하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안 맞는 사람과도 만나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조금 더 배운 것 같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오기 전에 '그래 조금 배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을 와서 지인이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듣고 '아..계속 배워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온아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사람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현식 (Atong)

그 어느 때보다 나를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사실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다.
불친절하기도 하며, 밖에서조차 그렇게 밝은 얼굴로 다니지는 않는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남에게는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그냥 하면 만족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
막상 필리핀에 와보니 역시 한국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랐다.

내가 아무리 밝은 표정을 짓지 않고 있어도 언제나 나의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
해주는 사람들, 처음 봤지만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 필리핀 현
지인을 닮은 외모라는 이유로 더더욱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들까지.
내가 만난 필리핀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굳이 내가 한국에서의 삶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들(필리핀 현지인)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만큼, 나도 친절해지려고 했고,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려고 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많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팀원들에게 배운 점이 너무나 많다.
나와는 상반된 성격의 친구를 포함하여, 웃음이 많은 친구,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친구, 하고 싶은 말은 꼭 할 줄 아는 친구까지 멤버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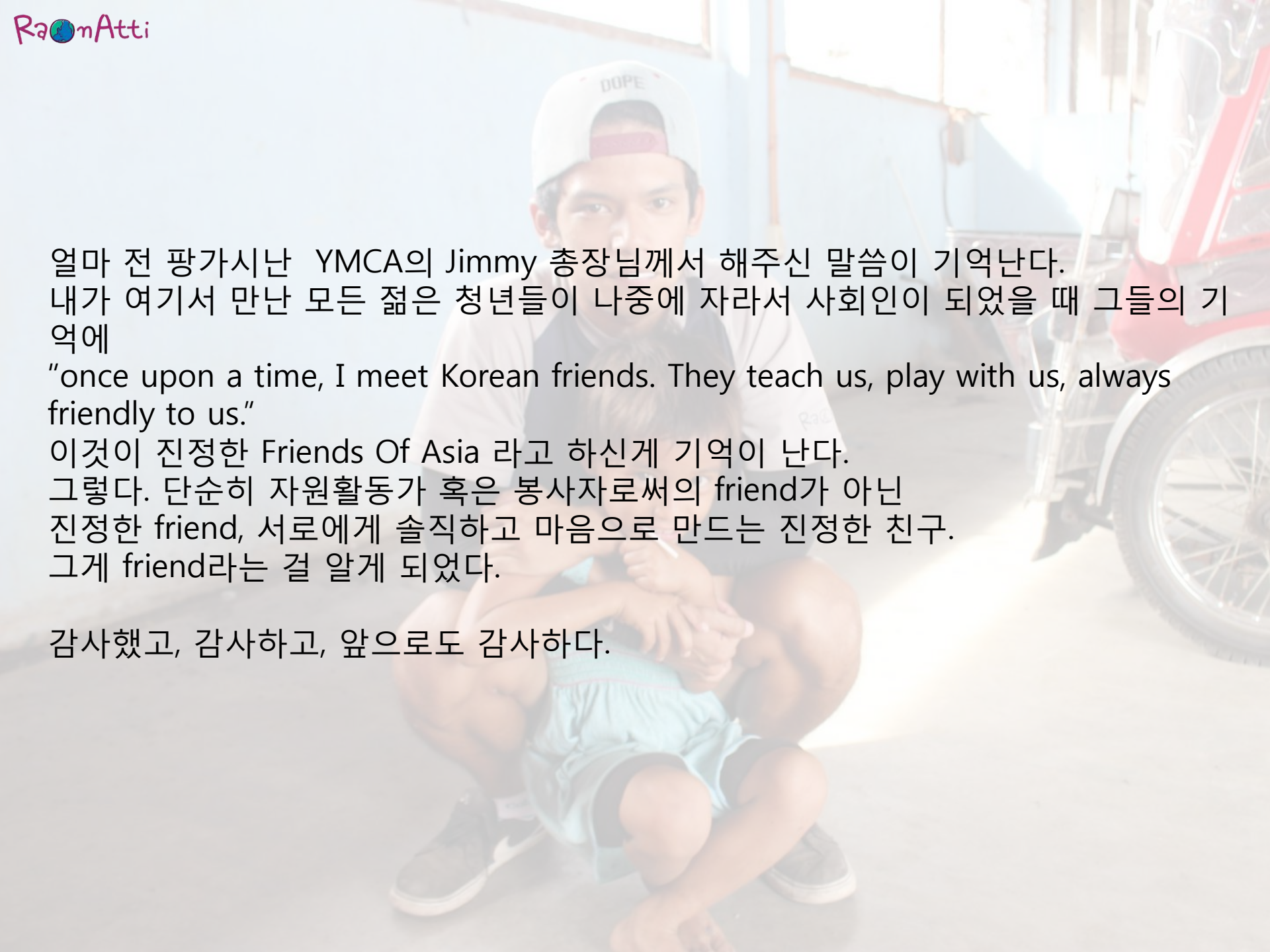
덕분에 나는 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처럼 변했다는 걸 느꼈다.
나름 내가 정한 작은 목표에는 도달한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밝은 성격을 가진 친구라고 기억해주고, 친절하거 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장난끼 많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사이트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청년들, 아이들 또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한국 가서도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유지해보려고 생각중이다.

필리핀에서의 좋은 시간은 너무나도 많았다.
 각 사이트(덤프사이트, 푸가로)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함께 웃었던 것,
 팀원들, YMCA 청년들과 함께 방우스 페스티벌을 준비한 것,
 싱가포르 친구들과 함께 Work Camp에 참여한 것,
 Sta.Cruz에서의 홈스테이 생활까지..어느 하나 빠짐없이 좋은 추억들로 가득하다.
 여기서의 모든 기억들이 나의 삶 어느 한 곳에 크게 자리잡고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떠한 생각이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는지,
 혹은 잠시 꿈을 꾸고 돌아와 다시 현실을 맞이하여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관계라는 걸 알게 해주고, 친구가 뭔지에 대해 알게 해주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
 등 배운게 정말 많다.



얼마 전 평가시난 YMCA의 Jimmy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여기서 만난 모든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에

"once upon a time, I meet Korean friends. They teach us, play with us, always friendly to us."

이것이 진정한 Friends Of Asia 라고 하신게 기억이 난다.
그렇다. 단순히 자원활동가 혹은 봉사자로써의 friend가 아닌
진정한 friend, 서로에게 솔직하고 마음으로 만드는 진정한 친구.
그게 friend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감사했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다.

조유림 (Lagring)

5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맨 처음 라온아띠 포스터를 보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난 그 당시 학교 학점관리와 알바를 해가며 정신 없이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왔었다. 학교 끝나고 귀가 하면서 우연히 본 "라온아띠 포스터" 아이가 봉사자에게 꽃을 건네주는 사진을 아마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것이다.

바라보면서 든 생각은 나도 해외 나가서 이렇게 국제자원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나라에 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싶었다.

또한 라온아띠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기회는 몇 번 찾아온다고 한다.

난 라온아띠 15기 필리핀에 배정을 받아 5개월간 필리핀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는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문화를 접하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된다.

소소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랑을 베풀고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라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큰 활동지로는 덤프사이트, 푸가로 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외로 싱가포르 캠프, 방구스 축제 등이 있었고 그 뒤 홈스테이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다.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화나는 일 등 여러 감정이 있는 가운데 배운 점도 많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다. 활동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점은 "인사"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기본적인 것에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푸가로 활동 초기에 너무 그린하우스에만 신경을 써서 푸가로 주민들을 신경 안 쓰고 그린하우스 작물에만 매달렸었다. 중간평가 이후에 인사 먼저 다가가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난 후 인사를 먼저 하니 푸가로 주민들도 정겹게 다가와 주었고 우리는 주민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덤프사이트는 쓰레기 더미에 주민들이 사는 와중에 어른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이 많다. 덤프사이트에 아띠클라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땅 즉 바닥에는 뽕족한 유리병과 날카로운 것이 많아. 아이들 피부에는 상처들이 많다. 나도 약을 가져와 치료를 한다 하지만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난 상처치료 전문 의가 아니라서 물혹이 찬 어린이, 머리 쪽 피부가 벗겨진 갓난아기 그리고 아이들 이빨에 심한게 생긴 충치들 이런 병 및 상처들이 내가 치료를 못해주어서 미안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아이들 방학이 끝난 뒤인지라 덤프사이트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서 우린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3주간의 홈스테이는 나에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나나이 리빙(69) 할머니와 나 이렇게 둘이서 집에 살았다.
 나나이 리빙 남편 분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과 딸은 일하러 마닐라 및 캐나다
 에 가서서 나나이 리빙은 혼자 살았다.
 많이 날 돌봐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우리 엄마. 나나이 리빙 직업은 스윙, 옷을 만드신
 다.
 그래서 드레스 만드는 모습 옷 수선 유니폼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우리엄마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오후에는 빙고게임을 이웃주민 아줌마들과 함
 께 한다 우리 집은 테라스가 있는데 오후만 되면 마을 회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서 빙고게임을 하루도 안 빼먹고 하신다.

홈스테이 집 근처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거의 오후에 매일 우리집에 해맑은
 미소로 아떼!! 라그링!! 부르면서 찾아오면 나는 반갑게 아이들과 컬러링수업, 팔찌
 만들기, 영화(겨울왕국, 주토피아), 상처치료를 3주간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수업 참여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나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좋은 수업들이 진행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밖에서 꽃을 꺾어와 준다.
 아이들에게 꽃을 받는다는 게 왜이리 기분이 좋고 왜이리 감동을 받는지 꽃과 편지
 를 받을 때 나는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라온아띠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에 있었을 때 솔직히 부끄럽지만 난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였다.

나와 성격이 안 맞은 정반대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부로 말을 안 하고 상대를 안 했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나만 잘하면 되라는 심보랄까.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개인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보이게 된다면 난 사회생활에 끼지도 못하겠더라는 걸 깨달았다.

같이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팀원들의 생각도 존중 해주어야 한다는 걸 또한 팀원들 중 나와 정반대의 성격의 소유자와 함께 살았었다.

불평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초반에는 참았었다. 참고 넘겼다. 참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알고 대화를 풀며 해결하는 방식이 좋다는 걸 알았다.

또한 말을 할 때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조심조심 그리고 아띠 하우스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직접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 요리가 재미있더라는 걸 일깨워주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 샤워를 하고 나서 나는 내일 드라이기를 사용을 했었다. 여기서는 자연 바람으로 말려도 아무렇지 않고 자연바람을 쐬며 머리를 말리는 것이 좋아지고 하늘이 이렇게 이쁘다는 걸 알게하고 노을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주변 및 활동을 집중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생각이 된다.

스마트 폰 없이도 살 수가 있다는 걸 오히려 내 자신과 팀원들과 이야기를 더 많이 주고받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팀원들 및 팡가시난 YMCA 식구들과 더 많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 집중을 하며 나를 알아갈 수 있었고 팀원도 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 내가 어딜 가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곳 안 식처 같은 느낌.

라온아띠를 하지 않았더라면 난 사소한 행복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갔을 거 같다. 라온아띠는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선물에 주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고 깨닫게 해주었으니 나도 한국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은 관계를 쌓으며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이다!

박연수 (Narda)

연수입니당

필리핀 가서 어땠냐고요? 음.. 밤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웃으면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 것 같아 봉사활동을 가게 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하 진심입니다.

필리핀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쓸 때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글은 항상 못쓰고 재미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을 쓸 때에 나의 솔직함을 담으면 그 글은 셰익스피어 못지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별 에세이에서도 썼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에세이는 6월 보고서를 따겠습니다.

-
"관계"는 나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 이였다.
한국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관계를 포기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라온아띠는 달랐다.

나는 살아가는데 초점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추어져 있다며 그들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 해 주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그들이 바라는 모습은 내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느꼈다. 무서웠다.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난 최악중의 최악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 어 너무 힘들었다.
그냥, '관계'가 너무 힘들었었다.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배려'라고 행한 행동이 타인에게는 '배려'로 다가가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
타인의 생각을 '일반화'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 나의 '일반화'일 수도 있다는 것.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며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실망'이라는 단어가 생각 이상으로 큰 의미라는 것.
'애정'이 있어야 서운함,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애정이 바탕이 된다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힘이 들수록 나에게 힘이 들게 하는 단어들을 정리해보았다.
 방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며 정답은 없었다.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하며 계속, 계속 가지를 쳐서 써 내려갔다.
 그러니 한 단어에도 나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더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말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실히 생각 정리가 많이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전의 나는 관계란 결국은 누군가가 다가가야만 형성되는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기'만을 했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을 위해, 나를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기'.... 아직도 힘이 들지만 조금씩 천천히 해 보려 한다.

이번 달에는 특히 나의 주변사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상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한 아이라
 는 것을 느꼈다.

"함께 기다리자. 힘이 들 땐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관계에 지쳤을 때 제일 힘이 되었던 말이다.

'함께'...그 어느 때보다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 단어의 힘을 느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닮은 부분이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
했는데 다른 부분을 느꼈다.

아!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만 모두 조금씩은 같은 점이 있구나! 다름을 찾아 고려
하는 것(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다름이라는 생각에 묻혀 같은 점까지 못 보진
말아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는 나에게 달렸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밍게만 보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선한 마음을 보기를 좋아하면서 미운 점만을 보려 했다니.... 바보 같다.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자.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고, 시간은 흘러만 가니까.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되자.

필리핀에서 한국이름 '박연수'보다 많이 불리운 'Narda'란 이름.
지금 생각해보면 '날다' 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에게서는 한국에 와서는 이제부터 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싱가폴 캠프 갔을 때 봤던 문구이다.

막상 당시 이 문구를 봤을 때 내가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었다.

지금 라온아띠가 끝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라온아띠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즐겼기에 후회가 없고, 즐겼기에 나는 행복했다.

“라온아띠 하기 참 잘했다!”

나에게 행복을 맛 보게 해 준 라온아띠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는 5대종교가 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 그리고... 라온아띠!

이 봉사활동을 통해 ‘라온아띠’란 나에게 가야할 방향, 추구해야할 목적을 일깨워준 구원자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 안의 제 손을 잡아주셔서.

이다운 (Kikay)

솔직히 아직은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다.
곧 눈을 뜨면 라온아띠 티를 입고 가족사진 한 장 딱 찍은 다음에 모자 쓰고 YMCA 오피스로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익숙했던 5개월의 시간동안 나는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고, 그렇게 만나게 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나의 게으름도 많이 고쳐졌다. 또한 아이들과 노는 것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게도 되었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의 과도한 욕심도 쓰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라온아띠 이 5개월의 활동들에서 내가 어떤 큰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지만 내가 하기 싫어 그저 외면했던 것들에 직면하는 용기를 그저 필리핀에서 내보았던 덕분이었다.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들은 나에게겐 힘들고 부끄러운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그런 도전 끝에 나는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힘들게 느낄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다. 또한 바뀐 점 중 특별히 '욕심'에 대해 말하자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만들어 냈고, 결국 그러한 욕심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욕심을 조금씩 버리게 되었고,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싶은 모습을 내가 다 가지려 욕심 부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에 내 마음을 내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게 되었다. 또한 나는 어떤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다. 대신에 더 많이 주고 싶어 졌다.

많은 것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웠고, 쓸쓸했고,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덤프사이트, 푸가로의 아이들과 주민들부터, 산타크루즈의 소중한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 또한 YMCA 가족들. 이들에게서 나는 많은 영감을 받았고, 장기적인 계획 사이사이에 작은 계획들이 있듯이, 하지만 작지 않고 조금은 크게 나의 또 다른 계획으로 남아 나의 꿈을 향한 길 사이사이에 나를 힘이 나게 해주는 영감으로 자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소중한 라온아띠 필리핀팀. 어느 누구보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고, 먹먹한 생각이 들게 했던 우리 팀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깨달았던 모든 것들, 즐거운 경험들, 우리 팀이 없었더라면... 생각하기도 싫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고. 맞지 않아 서로 언성을 높이고 불만 섞인 말을 하다가도. 그래도 돌아서면 우리 멤버들이 있었다.

가족보다는 덜 가족 같지만 친구보다는 더 애뜻한 나의 두 번째 가족과 5개월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새로 사갔던 신발은 완전히 헨 것이 되어 돌아왔고, 까맣던 피부는 더 새까맣게 변했다. 그렇게 5개월은 다양한 것들을 바꾸며 내 시간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에게 라온아띠는 여전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는, 라온아띠는 이때까지의 어떤 경험보다도 나를 많이 바꾸었고,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Salamat Po ☺